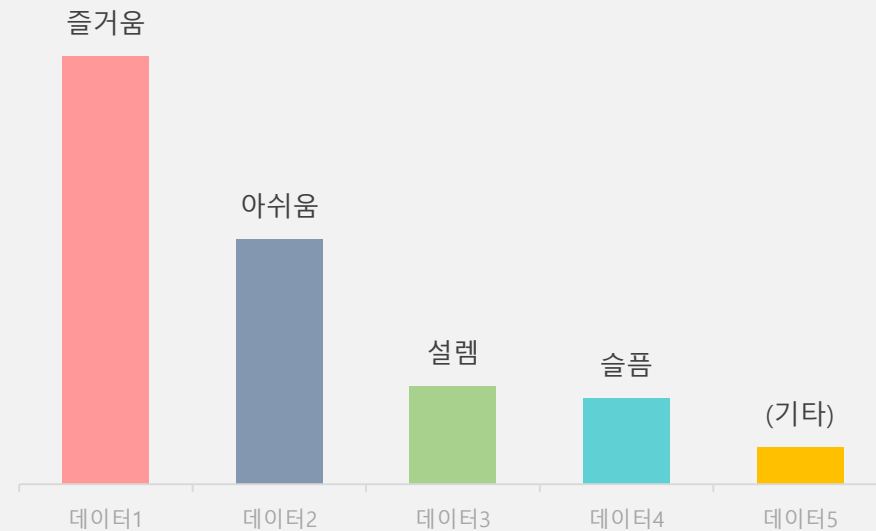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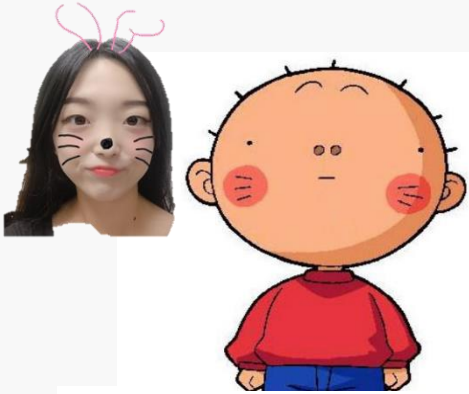
18기 베트남 호치민팀의 9월 STORY



9월의 우리 주제는
“CHILDREN”



09월, **소희**가 소개하는 우리 팀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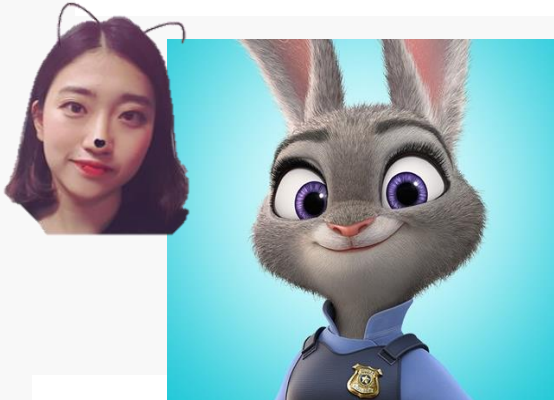
- 동글동글 해룡이 **수연**
- 어디서든 춤신춤왕
- 요리는 자신감이지 ~
- 얼굴은 아기상이지만 생각은 깊은 어른



- 동키상 **재열**
- 알고보니 요리왕
- 알고보니 우리 중 제일 상표랑 찰떡궁합
- 근검절약, 배려 등등 좋은 거 열심히 실천 중



- 자체 소개하는 빨간 망토 **소희**
- 자체 소개 어려워하는 스타일
- 다음 달 팀원에게 내 소개 맡길 스타일
- 1일 1 일기 쓰며 나를 알아가는 중



- 스웍 주디 **수민**
- 우리 팀의 든든한 막내
- 흑백사진 잡지표지에 실려도 될 정도
- 반전 매력 주의 **



- 고향만두 아저씨 **상표**
- 알고 무한한 지식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만능인
- 조금 신고할 거리 많은 스타일
- 동시에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되는 보배

다들 무사히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하여
1군 YSD 사무실에서
거주 중!



우리와 함께하는 YSD(YOUTH Sustainable Development)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 아래 **젊은 친구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Ngo입니다.

This is doing..

Strategies and management Consulting

Short-term voluntary project
- Workcamp

Long-term voluntary project
-우리

Organize social & Educational seminar





이상표에게 YSD란

솔직하게 말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양소희에게 YSD란

알고 싶고, 아직은 궁금한 게 많은 곳이다. 이 곳의 사람에게는 열정이 느껴진다. 나에게 지금은 낯설지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이다. 지금까지 나에게 YSD는 궁금한 “?”이다.



이수연에게 YSD란

정의 : 다양한 청년들(성격, 학과, 직업 등)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는 단체
나에게 YSD란 -분명 서로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은 큰데 뭔가 잘 안된다...



이수민에게 YSD란

아직은 서먹하지만 진정한 친구가 될 사람들.



오재열에게 YSD란

나에게 YSD는 아시아의 좋은 친구들이다. 그들은 우리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미소와 친절을 씬없이 베풀고 있다. 우리가 이곳에서 활동하는 동안 우리의 의견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같이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큰 고마움과 미안함이 느껴진다. 언어와 문화의 다름으로 인해 서로가 천천히 알아가고 있는 단계이지만 확실히 나는 정말 따뜻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한다.

생각

우리에게 YSD란...



Page 1



우리의 주활동은 KY Quang Pagoda

Pagoda(기관 방문)

Niem Tin (기관 방문)

훈련 & 교육

단기 프로젝트, 문화 활동



YSD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준 이번 달의 주제는 'Children'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관련한 베트남의 여러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훈련도 받고. 베트남어 수업도 받았어요. 또한 YSD의 단기 프로젝트 활동에도 조금씩 참여하고 우리만의 문화활동도 가졌습니다. ^-^



9월은 주로 뇌성마비 아이들을 만나며 베트남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day-off 혹은 half-day에는 텐션 업!의 일환으로 함께 문화 활동을 하기도 하고 각자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KY Quang Pagoda

training

Niem Tin Organization

Culture & education & personal time.

< September >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	25	26	27	28	29

첫번째 이야기

LIVE



KY Quang Pagoda

다양한 아이들, 사람들과 함께한 파고다. 9월의 소식.

파고다 속 아이들 만나기

- Ky Quang pagoda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사찰이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어요.

A D 재열,수연 팀

B C 소희,수민,상표 팀

파고다에서의 봉사활동은

두 팀으로 나뉘져 이루어졌어요.

두 조가 오전과 오후 타임을 교대로 들어갔어요.

뇌성마비 아이들이 있는 곳과 파고다에서 생활하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곳을 나누어 각자 팀만의 색깔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뇌성마비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주로 **아이들 걷기 훈련, 산책, 음식 섭취, 놀아주기** 기타 등의 활동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선생님의 교육 보조, 아이들 활동 참여,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파고다 속 아이들 만나기

우리는 항상 노란색 티. 다들 우리를 노란색 티로 구분하는 거 같다.



처음의 우리는 파고다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다른 수많은 봉사자들처럼 능숙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파고다에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이 달의
주제인 아이들을 만나고, 특히 우리가 많이 만나
보지 못한 뇌성마비 아이들을 접하면서 그들을 알
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베트남 그리고 파고다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파고다 속 아이들 만나기



파고다에서는 가끔 이렇게 큰 행사들도 진행해요. 파고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의 경우는 **아띠 봉사자**만 있지만 뇌성마비 아이들이 있는 장소에는 **항상 다양한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 또한 또다른 배움이 되죠. 또한 이렇게 축제가 있을 때는 **정말 많은 외부인들이** 파고다를 드나들어요.



이렇게 봉사를 하며, 처음에는 익숙치 않은 환경에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하던 우리가 조금씩 적응해가며 파고다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항상 나눔 때 이에 관련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우리는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궁금증이 생긴 우리! 파고다를 이해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라온아띠

YSD

파고다

Ky Quang Pagoda 스님과의 인터뷰 성립



2018. 09. 25

라온아띠의 궁금증



1. 봉사를 할 때 보면,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 위주의 후원이 이루어지던데, 우리는 그보다 시설이나 용품에 대한 후원이 더 급하다고 생각한다. 후원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자원봉사자들이 왜 끊임없이 파고다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3. 관리해야 하는 아이들에 비해 직원 수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직원을 더 고용할 계획은 없는가?

KY Quang pagoda의 답변

처음 오는 사람들은 파고다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먹을 것'을 선택한다. 우리도 시설과 위생의 부분에 대한 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보통 페이스북을 통해 파고다를 접하고 이 곳을 찾는다. 우리는 아직 공식적인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홈페이지를 만들 예정이다.

앞으로 직원이 6명 정도 더 퇴사할 것이다. 우리가 직원이 필요하다면, 직원 고용에 대해 호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파고다 직원의 경우, 돈을 받고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들이나 이 곳에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원을 하기도 한다.



4. 뇌성마비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



5. 아이들에 대한 위생과
교육 시스템은 갖추어 있는가?



6. 단기 자원봉사자들에게
바라는 모습은 무엇인가?

뇌성마비 아이들의 경우, 다수가 보험이 들어져 있어, 뇌 수술을 받기는 한다. 하지만 거의 성공하는 경우가 없어 이들은 거의 14살 정도에 세상을 떠난다.

지금 사실상, 파고다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뇌성마비 아이들에 대한 보험의 문제이다. 모두가 다 보험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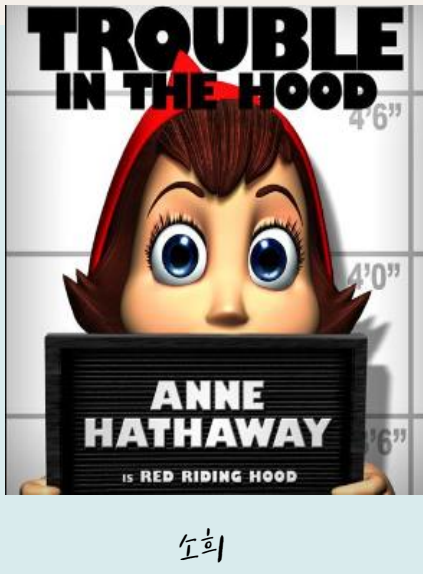
기본적인 위생과 교육 시스템은 실시 하에 있다.
하지만 부족한 면들이 많다.

+ 우리는 1층의 공간밖에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2층을 둘러보니 큰 아이들은 각 방마다 수업을 진행 하에 있었다.

사실상, 파고다에 실질적인 후원을 해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뇌성마비 아이들과 잘 놀아주었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과 놀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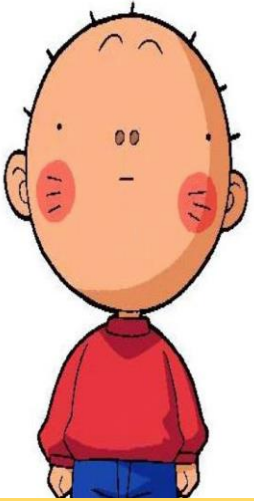
사실 아직 큰 의미를 찾지 못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한 활동들이 라온아띠가 있는 동안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라온아띠가 끝나고 우리가 여기를 떠난다면 기존과 같이 돌아가거나 기존보다 더욱 악화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개인적인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미를 찾는 것과 동시에 아주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나의 생각 전환의 계기”

이 활동을 하면서 나는 라온아띠로서 배움을 잘못 이해한 게 하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떤 일에 있어서든 “그럴듯한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처음 파고다 활동이 힘들게 느껴졌던 거 같다. “그럴듯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단순 봉사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눔을 하며 팀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면서, 나는 파고다를 관찰하는 동시에 거기서 적응해 나가는 내 모습을 지켜 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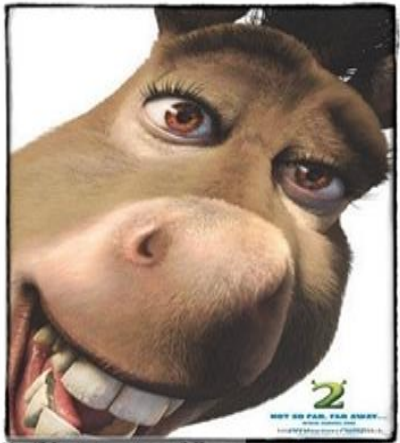
그러면서 보인 것이 파고다 안에서의 체계와 거기에서 비롯된 문제점, 그리고 아이들과 유대감이 쌓여가는 과정과 파고다 안에서 적응해 나가는 나의 모습이었다. 사실 파고다 활동이 처음에 9월이 끝이라고 했을 때 나는 아쉬움이 컸기 때문에 별개로 봉사를 따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일정이 변경되어 파고다가 우리의 장기 활동이 되었고, 팀원들마다 파고다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파고다에서 만들어갈 우리의 모습은 계속해서 숙제로 남아있다.



수연

처음 사원(파고다)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감정은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다”, “시설이 많이 열악하다.”였다. 그에 반해 아이들을 돌보고,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활동을 시작하고서는 “진정 이 기관은 우리가 필요한가?”,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찾아야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걱정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능수능란하게 자신의 할 일을 찾아 하는 다른 나라 봉사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나의 모습이 꽤나 비교되어 혼란이 오기도 했었다.

이렇게 그 안에서 내가 할 일, 이 봉사의 의미들을 찾아가며 정신없이 활동을 해나갔고,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이제 나도 파고다의 한 부분이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한 달을 활동했고, 나의 감정곡선은 하루하루 롤러코스터를 탔다. 그러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소소한 재미도 느껴가는 중이다. 앞으로 남은 4개월간의 파고다 활동이 무척 기대된다.



재열

처음에는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과 직원 모두와 의사소통이 힘들어 기관에서 나의 역할과 활동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불편한 부분이 있었기에 나는 그 속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을 찾고 행동 할 수 있었다. 시간과 방문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나는 더욱 기관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해하며 관계형성을 더 할 수 있었고, 말이 아닌 눈과 마음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10월도 이곳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한 달 동안 나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베풀지 또 어떠한 시간을 보낼지 기대가 된다.



수민

9월 달 Children을 주제로 우리가 처음 봉사활동을 간 곳이 파고다였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 3~6세 정도의 아이들을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이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물론 뇌성마비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거부감도 들었다. 또한 우리가 이곳에 봉사하는 것에 의미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도 있었다. 그리고 뇌성마비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모습에 많이 당황스럽고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다. 식사시간이 되자 아이들을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한 사람 씩 한 아이를 맡아 식사를 도와줬다.

아이들은 먹기 싫어 입에 있는 것을 뱉고 아예 입을 열지도 않기도 했다. 그러자 어른들은 억지로 아이들의 입을 벌려 넣게 하고 아이가 뱉어도 다시 먹게 했다. 이 모습을 처음 봤을 때는 아이가 싫어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한 달간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억지로라도 꼭 먹여서 영양분을 섭취를 도와줘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또한 3~6세 정도의 아이들은 사랑이 부족해 서로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다소 안타까웠다.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 옆에서 놀아주고 웃어주고 노래 불러주는 등의 활동이었다. 이제는 제대로 된 활동을 계획해서 그들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두번째 이야기

LIVE



Niem Tin Organization

새로운 기관에 간 우리들. 그 곳에서는 또 어떤 일이?

“Niem Tin” 속 아이들 만나기

- 이 곳에 처음 갔을 때, 엘리자베스 수녀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반갑게 맞아 주셨다. 그리고 파고다와는 또 다른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깐! 뇌성마비 아이들이 있는 이 곳!
파고다와 뭐가 다를까요?

PAGODA
-DAY care center /

뇌성마비 아이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봄.

Niem Tin
-Education organization

주로 부모가 있는 뇌성마비 아이들이
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기관.

이 곳은!
- 뇌성마비 아
이들의 치료
를 위한 기관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 각 분야 선생님들이 이
곳을 방문하여서 (자원을 하는 경우가 많음)
아이들의 교육을 도움.
뇌성마비 아이들의 경우도 여러 증상이 있는데.
파고다보다는 중증의 아이들이 많지는 않음.
2층에서는 한 명 씩 집중 치료가 이루어짐.

- 처음에 갔을 때는. 이 곳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치료하고 교육하고 놀아주는지를 지켜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우리도 아이들과 친해지고 놀아주며
조금 더 뇌성마비 아이들에 대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거 같다.

“Niem Tin” 속 아이들 만나기

- 토요일은 음악 시간! 아이들과 함께 우쿨렐레로, 음악으로 함께하는 시간.



토요일에는 우쿨렐레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멋진 음악을 선물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쿨렐레를 가르쳐 주세요. 저희도,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Niem Tin" 추석 축제 참여

- 22일에 열린 뇌성마비 아이들의 가족들 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에 감사하게 저희도 봉사자로 참여하여 추석을 보낼 수 있었어요.



- 저희의 역할은 각 부스로 나누어져 봉사를 하는 것이었으나 막상 가서는 정해진 역할을 하기 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뒤에서 조금씩 도와주며 베트남의 추석 축제, 문화를 배우고 갔답니다.

“Niem Tin” 추석 축제 참여

- 또한 엘리자베스 수녀님께서 우리에게 원한다면 퍼포먼스를 준비해도 좋다고 하셔서 저희는 춤을 준비해보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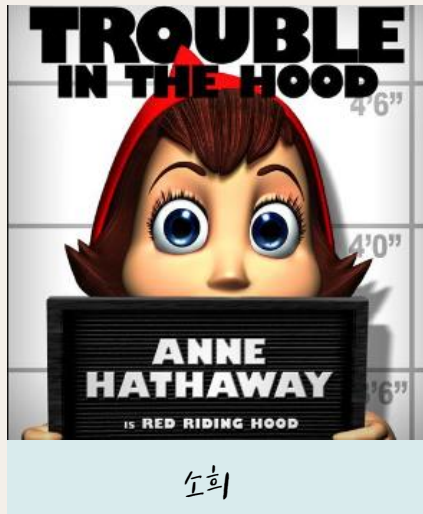
아이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아기상어”와 베트남 추석
노래 “동징징”을 선택한 우리.
집에서 열심히 춤을 취보았어요.
나름 만족을 하면서.. ^^



앞 순서에서는 베트남 아이들 댄서팀이 현란
하게 춤을 추고
뒷 순서에는 고풍스러운 바이올린 소리가 울
려 퍼졌지만
우리는 나름의 우리만의 스타일로 퍼포먼스를
잘 맞췄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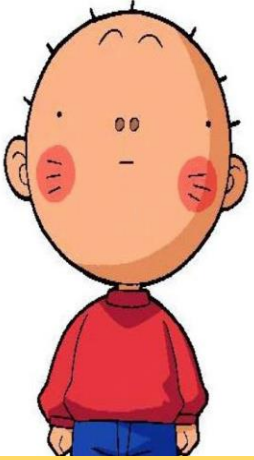
기관 자체가 나와 너무 잘 맞는 곳이다.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친한 신부님과 수녀님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많은 종교이다. 첫 이미지부터 가톨릭에서 사목하는 기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계속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케어를 맡은 아이를 한 번 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지속적으로 아이와 만나고 소통하면서 더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환경에 대해 생각해본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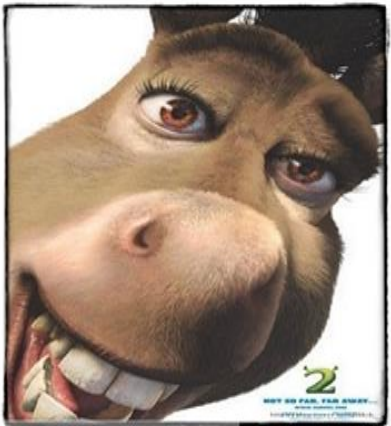
사실 나에게 이 기관에서의 활동은 그 자체로서 보다는 파고다 활동을 하고 있기에 이 기관을 방문한 것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이 기관을 방문했을 때 내내 뭔가 마음 한 구석이 걸렸는데, 그게 바로 파고다 아이들이 생각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곳의 뇌성마비 아이들과 다르게 이곳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케어 아래 기관에 방문하여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놀이와 교육을 받고 있었다. 파고다의 뇌성마비 아이들도 물론 직원들과 봉사자들의 사랑 아래 있지만 그것은 부모가 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랑과는 다를 것이며, 중증의 아이들은 거의 하루 내내 이상증세를 보이며 앓아 있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결국 여러 요소가 결합한 “환경”이 만들어낸 차이인 거 같아 마음이 아팠다.

이번 달 프로그램이 좋았던 건 파고다를 경험하고 ‘Niem Tin’에서 선생님들이 뇌성마비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놀아 주는지를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기관에서의 활동을 통해 그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고민해볼 수 있었다.



수연

전문적인 치료가 오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솔직히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늘 우리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수녀님 덕분에 힘을 얻어 조금씩 아이들과의 관계형성과 치료도구들의 사용법을 익히고 있다.



재열

소수의 인원으로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환경과 봉사자들을 보며 나는 집중적으로 아이들의 놀이교육, 교감과 표현 그리고 뇌성마비의 정보 등 많은 것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다. 또 지켜보는 것만이 아닌 행사와 기관에서 음악 활동의 일부로 참여를 하면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이 기관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파고다에 있는 친구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다. 10월에는 아동 결연이 이루어졌는데 나와 함께 할 친구와 어떠한 시간을 보낼지 기대가 된다.



수민

니엠띤은 뇌성마비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다음으로 간 장소로 뇌성마비 아이들이 교육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은 파고다와는 달리 체계도 잡혀 있었고, 환경도 쾌적하여 아이들이 지내기 좋은 곳이었다.

또한 파고다와 많이 달랐던 점은 이곳의 아이들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몸짓하나 손짓 하나에도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모습에 어딘가 모르게 파고다의 아이들이 계속 떠올랐고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 파고다에서 적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고 느꼈다.

세번째 이야기

LIVE



Diverse Activity

베트남을 이해하는 시간, 다양한 경험을 한 우리들!

호치민 알아보기

-쉬는 날, 우리의 계획 하에 YSD친구가 동행을 하여 사무실 근방 호치민 투어를 하였다!



1

우리의 동반자 "LY"가 다니는 호치민 인문사회대학을 구경하기 위해 첫번째 발걸음을 옮겼다.



대학 안의 강의실, 도서관, 식당 등도 구경했는데, 상당히 외국인, 특히 한국인들도 종종 볼 수 있었다. 또한 도서관에서 한국어로 된 베트남어 공부 책을 발견하여 5부를 인쇄했다!



2

- 호치민 중앙 우체국
이 곳은 프랑스가 베트남을 점령하고 있을 때 지어진 건축물로,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지로 이곳을 찾고 있는 듯 보였다. (우리처럼^^)
관광객이 대다수였지만 양 사이드에서는 실제로 우편업무를 하고 있었다.



호치민 알아보기

-쉬는 날, 우리의 계획 하에 YSD친구가 동행을 하여 사무실 근방 호치민 투어를 하였다!



이 곳 또한 관광지로 꼽히는
"통일궁"으로, 원래는 프랑스 식민
통치에서 독립한 것을 기념해 "독
립궁"이라 불렀으나 이후 월맹과
월남과 통일된 것을 기념해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Feat, dong품 잡는 상표



고상하게
우아하게
자신있게! ^-^



우리를 안내해주고
친절히 설명해준
극한 직업 LY와 함께!
Cam on (고마워)



마지막은
역시 맛있는 것과 함께!
베트남에 오면 꼭!!!!
먹어야 할
"콩카페"의 코코넛 커
피.

맛있다. 당당

베트남에서의 추석

- 서로의 문화, 우리를 알아가는 시간.

추석을 맞아
아띠들이
YSD에게 요리를 해준 날!



베트남 추석
간식
'Moon cake'
도 만들어 봤
구요~



우리의 메뉴는
김밥, 제육볶음~!
김밥말이 없이 만든,
레시피 없이 만든
우리의 음식 ㅎㅎ



랜턴 만들기

- YSD단기프로젝트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하는 추석 랜턴 만들기"

고등학생 YSD 친구들이 단기 프로젝트 전 날
YSD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WHY? 그 다음 날
베트남 추석 랜턴 만들기를 친구들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이죠!

요렇게 ~~ **우리만의 랜턴도**
만들어봤어요!
이 안에 양초를 이용해
불을 켜는 것인데. 그건 그 다음 날에!
실패도 있었지만 이렇게 개성대로 **완**
성!



랜턴 만들기

- YSD단기프로젝트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하는 추석 랜턴 만들기"



다음 날! 우리는 새로운 인연의 베트남 친구들과 랜턴 만들기를 했습니다. 아띠들이 여러 조로 나뉘어 들어갔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알려주는 했지만
다들 알아서 잘한 건 비밀~

만들고 다 같이 랜턴에 불을
켜는 시간을 가진 건 안 비밀
~ ~

#우리들의 시간

- 우리가 베트남에서 보내는 그 순간들.



우리들만의 힐링 시간 !

집에서 노트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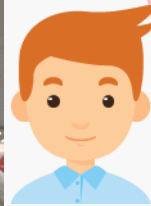
영화 "노트북"을 함께 봤어요!

안 본다던 상표가 제일

재밌게 봤다는~



- 영화 "너의 결혼식" in 베트남 영화관



우리의

~

"Tin"이 권유해준 덕분에

함께 급 영화를

보러 나갈 수 있었던 거였어요!

깜언 ~ 씬 깜언



#우리들의 시간

- 우리가 베트남에서 보내는 그 순간들.



#벤탄시장

#야시장

#남남

#너무 맛있다~



어머! 둘이 뭐야~
모델이야 뭐야~



배불리 먹고
호치민 시청으로
이동!!
오랜만에 밤에 나간
우리 지금 신나~



#우리들의 시간

- 우리가 베트남에서 보내는 그 순간들.



예쁜 동생이들

이렇게 카페에서

각자의 시간도

즐기고~~



- 호치민 전쟁 기념 박물관

우리가 이 곳에서 느꼈던 건,

"우리가 전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이 공간에 모두 담겨 있다"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다. 피해자만 있을 뿐"

"DON'T KILL MY FATHER, 전쟁이 가져오는 절망과 참혹함을 느꼈다. PEACE"



Training

베트남팀에게 주어지는 교육

우리에게는 총 3번의 Training과 일주일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베트남어 교육이 있었어요.

01

- Ysd & children 교육

- YSD에 대한 설명. 기관의 성격에 대한 이해.
- 아이들의 성향에 따른 행동 방식에 대한 교육, 우리가 아이들을 성향에 따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

03

- Fund raising 교육

- 예산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
(후원을 받을 때 있어 고려해야 하는 것들.)
 - event type, spend budget, event quality
 - how get the money

02

- Social project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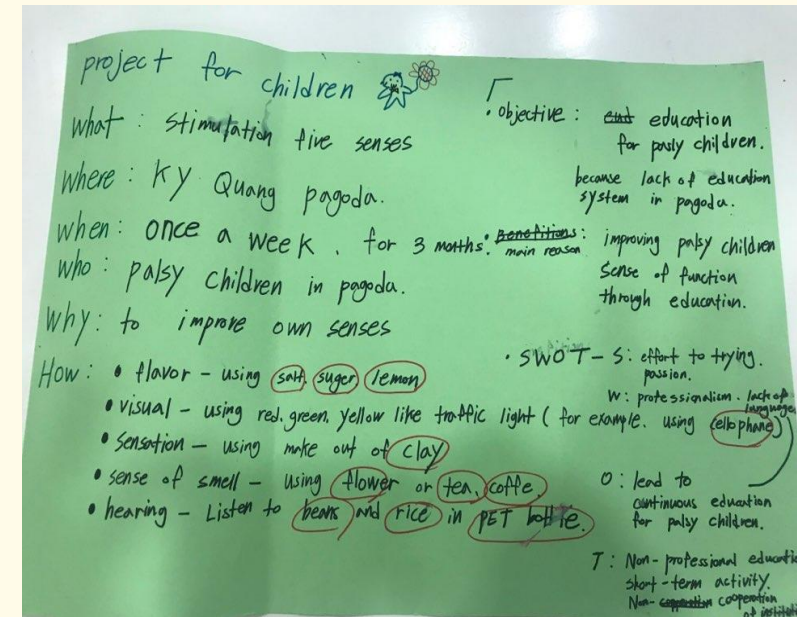
- 사회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 5W(what, where, why, who, how)
- Tip : objective, Beneficiary, competitors
Time line, core value, Budget, SWOT....

03

- 베트남어 수업

- 베트남어 수업은, 호치민 대학교에 다니며 한국어를 공부 중인 "LY"에게 받는 중임.
베트남어 글자, 성조 현재는 일상에서 쓰이는 단어, 문장 공부 중.

04



교육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로

이렇게 프로젝트 시안을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주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젝트"

우리는 현재 자주 가는 파고다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계획을 세워보았다.

전자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

- 각자의 전자기기를 챙겨온 우리.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느낌.



상표

전자기기를 가져가지 않은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가 사용시간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자기기 사용량이 양적으로 많다고 해도 활동과 팀워크에 결코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항상 경계해야 하는 부분은 “과도하게 사용 ” “의존하는 것 ” 이다. 물론 “지나치게 ” “의존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정의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전자기기에 대해 경계하고 다시 생각하는 태도를 항상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전자기기 소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매우 잘했다 ” 이다. 평소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 용무를 전자기기로 보고 휴식할 때 핸드폰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YSD 특성상 현지 코디네이터와 즉각적인 연락(늦은 시간 또는 주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스케줄 변경 등 휴대폰을 급히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소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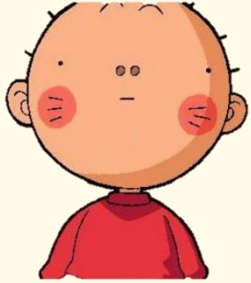
나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핸드폰을 들고 오지 않았으면 했다.

그러나 이 곳에 와서 느낀 전자기기에 대한 내 생각은 우리 팀에는 불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YSD와 즉각적인 스케줄 공유를 위해서 필요하며, 다들 써야 할 때와 쓰지 않을 때를 구분해서 잘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유심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와이파이만 가능한 곳에서만 핸드폰을 사용 중이기 때문이다. 물론 핸드폰 없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누리지 못한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핸드폰을 들고 왔지만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용무를 보러 나가는 것이 아니면 핸드폰을 꺼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집에서의 우리의 생활이 각자의 전자기기로 보내는 시간들이 다른 팀에 비해 많을 수는 있지만, 이는 우리가 전자기기를 들고 온 만큼 앞으로 더 우리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인 거 같다.

전자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

- 각자의 전자기기를 챙겨온 우리.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느낌.



수연

우리는 유일하게 휴대폰과 노트북을 5명 모두 가져온 팀이다. 솔직히 걱정이 먼저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휴대폰이 방해가 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란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ππ 그래서 우리 팀은 휴대폰 사용의 규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팀원 모두 유심카드를 구매하지 않았고 오로지 와이파이가 되는 숙소와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나의 피드백은 “가져오길 잘했다!”이다. 우리는 베트남에서 주로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이동하는데 이때 지도는 필수였고, 여기서 휴대폰 지도는 굉장히 편리하다.(와이파이가 필요 없는 오프라인지도!!)

또한 밖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어느 한 장소에서 모이기로 했을 때 갑자기 변수가 생기거나 위치가 애매해서 본인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휴대폰이 필요했다. 이렇게 우리는 휴대폰의 부정적 기능보다는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아직까지 휴대폰으로 인해 팀원 간의 트러블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물론 우리가 휴대폰이 없는 생활을 살아보지 않아서 그 둘을 비교할 순 없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휴대폰과 잘 지내고 있다.(물론 나만의 생각일지도 ㅎㅎㅎ)



재열

- 노트북: 제공하는 컴퓨터가 없기에 노트북을 여유 있게 챙겨 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 활동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활동이 아닌 직접 몸으로 하는 활동을 주로 하게 되어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노트북의 주 용도는 나의 개인시간의 사용과 가끔 팀원 활동으로 많이 쓰였다.

- 핸드폰: 유심없이 생활하고 개인적으로 휴대폰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고 싶어 숙소에서 가끔 사용하고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다. 큰 불편함이 없었으며 인터넷 작업이 필요한 것은 주로 노트북을 사용하였다.

- 개인적으로 많은 전자기기가 있어서 여유의 시간들을 전자기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적절한 전자기기 사용량을 잘 모르겠고 건강하고 효율적인 여유시간을 보내고 싶다.

전자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

- 각자의 전자기기를 챙겨온 우리.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느낌.



수민

처음에 핸드폰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을 때 나는 가지고 가자는 쪽이었다. 나는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를 듣는 것도 매우 좋아하는 편이다. 또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연락도 중요했기에 나는 핸드폰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17기와의 만남에서 핸드폰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에 '괜히 챙긴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베트남에 와서 1달간 핸드폰이 있는 삶을 살아보니 나는 좋았다.

이들과 연락하는 것에 있어서도 편했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모르는 곳에 갈 때도 편하게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하면서 개인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그러나 우리가 나눔을 하거나 단체의 시간을 보낼 때는 다들 사용을 자제하는 편이라 소통에 안되거나 소외를 받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핸드폰과 전자제품이 있는 베트남의 삶이 좋은 편이다. 또한 너무나도 많은 사용은 자제 해야겠다고 느끼고 있다.



한 달, 3544Km나 떨어진 낯선 곳에서 내가 보낸 시간이다. 누군가에게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달이다.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험한 기간이었다. 호치민이라는 도시를 처음 경험했다. 호치민에 살고 있는 고아들과 뇌성마비 어린이들을 만났다. 무엇보다도 YSD를 만나고 경험했다.

가장 먼저 Ky Quang Pagoda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아마 9월에 가장 중점적으로 한 활동이 아닌가 싶다. 고아원 아이들과 뇌성마비 어린이를 care하는 활동을 했다. 사실 너무나도 낯설고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아서 사실 힘든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동시간이 너무 긴 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은 짧지만 너무 힘들었다. 개인적인 활동 내용의 측면에서도 아직 만족할 정도는 아니다. 아직 이 활동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했다.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았으니 천천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찾고 싶다. 그리고 Niemtin에서의 활동이 인상에 남는다. 이 기관에서는 뇌성마비 어린이를 treatment 하는 활동을 했다. 사실 Niemtin은 잘 갖춰진 기관이었다. 전문적인 교구들과 선생님(재활치료사)들이 계신 곳이었다.

어떤 방법으로 뇌성마비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잘 알려주셔서 사실 너무 좋았다. 내가 어떻게 다가가고 어떤 부분에 대해 개선해야 할지 명확한 기관이었다. 한 번 담당하는 아이를 만나 treatment를 했다. 단기적으로는 큰 보람을 느꼈지만, 단기적인 만족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아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다. 활동뿐만 아니라 1달 동안 다양하게 호치민을 느껴보았다. 베트남 친구들과 교류하기도 했고, 호치민 시내를 구경하기도 했다. 나름, 호치민 그리고 베트남의 과거-현재-미래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쟁박물관 2곳에서는 87전쟁과 식민지배에서 고통 받은 과거, 성장가능성이 있는 현재, 성장할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베트남이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새로운 시설들은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었다. 베트남인의 평균 임금을 생각했을 때 구매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가격이었다. 고층 빌딩은 대부분 외국계 자본의 사무실이었다. '발전'이라고 이야기 하는 베트남의 성장은 베트남의 양극화를 가속화 한다는 생각을 했다. 발전 속에서 소외 받는 이웃들이 결코 소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온아띠 그리고 YSD의 역할은 소외받는 이웃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장의 이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라온아띠가 베트남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9월을 돌이켜보면 모든 활동들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많다. 의미를 찾은 활동들도 있고, 아직 찾지 못한 활동도 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나와의 대화'라고 생각한다. 잘 하고 있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진짜 도움이 되고 있을까? 지속가능한가? 이러한 물음들이 베트남에서 남은 4개월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한다.





9월은 나에게 정말 말 그대로 “적응”하는 단계였던 거 같다.

먼저 활동에 있어서 나는 여기 와서 항상 마음이 급했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얼른 우리도 베트남을 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문득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걱정으로 가득 찬 나를 보았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팀원들과 나누다 보니 든 생각이 누구나 다 베트남에 대해, 우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고민들로 절대 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현재 배우는 단계에 있고 천천히 고민하고 함께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는 몸소 느끼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지금 드는 한 가지 걱정은 아무래도 YSD사람들과 정확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깐 그들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 달의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할 목적과 활동이 자꾸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는 했지만 우리도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완벽히 이해하고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또한 우리가 앞으로도 그들과 완벽하지는 않아도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활면에 있어서, 먼저 ‘베트남’에 대해 말해보자면, 내가 있는 호치민 1군, 그리고 주변 2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발달되고 외국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다. 그렇기에 같은 한국인들도 많이 마주치고 한국과 비슷한 환경을 계속 마주친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나는 계속해서 그런 한국과 비슷한 환경을 찾아 나선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베트남을 많이 겪을 수 있는 환경을 많이 접하리라! 다짐을 해 본다^^



팀 생활에 있어서는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실 나는 우리 팀이 개인을 존중해주고 나눔을 통해 잘 싸우는 법을 실천하고 있는 거 같아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5명이 하루 종일 붙어있는데 언제나 행복할 수만은 없을 것이고 사소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나는 이를 불필요한,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이라면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항상 일기를 쓰면서 내 마음가짐을 정리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나의 태도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일요일에는 각자가 보내고 싶은 방법.. 교회, 나들이, 카페, 방콕.. 등으로 보내는 중인데, 우리는 그러한 팀 시간과 개인시간을 조화롭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요일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에는 가끔 다 같이 호치민 근방을 나가며 힐링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여기서 너무나 많이 배우고 싶다! 한 달을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 배우고 소통하려고 하다보면 우리의 역할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소중한 팀원들에게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행동하자!라고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앞으로도 재밌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베트남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





- 한국에서 가장 싫었던 나의 모습

우리의 공식적인 첫 활동이었던 파고다 봉사활동! 설렘과 기대를 안고 갔지만 첫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참 막막함을 느꼈다. 앞으로 이걸 5개월 동안 해야 한다고?ㅠㅠ 파고다 활동에 있어 의미를 찾지 못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사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것은 결코 즐겁지 않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에서 내가 가장 싫었던 나의 모습이었다. 기계처럼 일어나서 출발하는 학교,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등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맥없이 끌려가는 듯 한 나의 모습은 스스로가 봐도 못났고 시간이 아까웠다. (가장 창창할 청춘에ㅠㅠ)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꼭!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는 하루를 살아야지 하는 바람을 안고 왔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파고다활동에 무엇인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따라서 나는 파고다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 뇌성마비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 귀저기를 가는 것, 언어가 통하지 않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 등 하나하나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다보면 그것들이 쌓여 언젠가 나에게 다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 그런 자세로 파고다 활동을 이어나가다보니 이 활동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야한다는 조급함도 사라지고, 무엇하나 빠짐없이 다 내가 배울 것들이었다. 처음 "파고다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방해만 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오로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파고다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고, 이제는 그 누구보다 알차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점점 아이들과 관계형성도 이루어지고 있고, 서서히 직원 분들도 우리라는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앞으로 파고다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안에서 나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이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 에세이를 쓸 때는 어떻게 변해있을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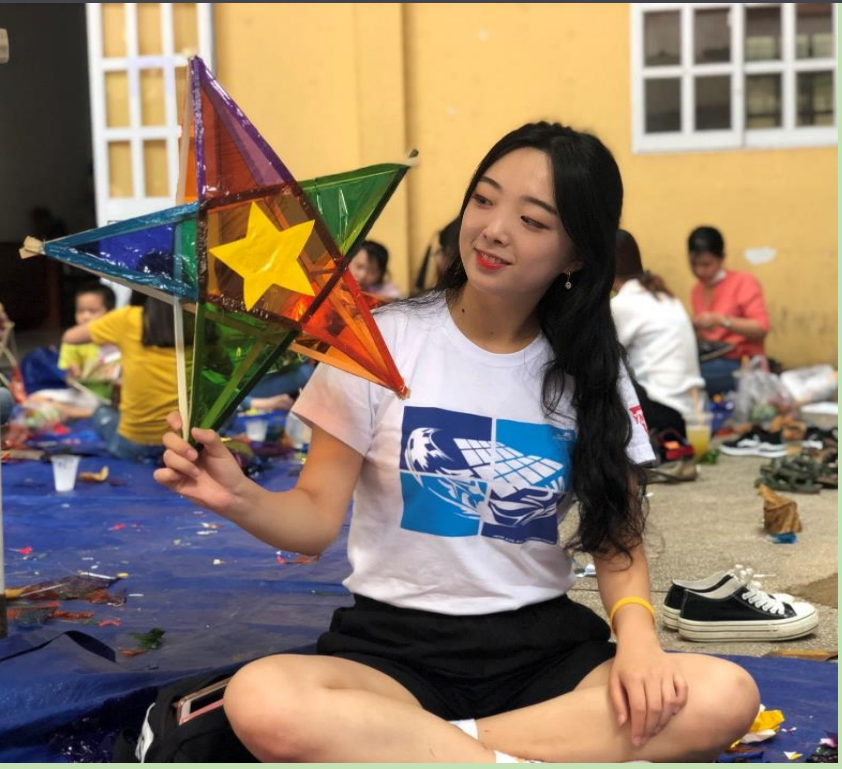


- 나와의 약속. 매일의 일기

베트남에 오기 전 내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질 않는다. 아마.. 초등학교 4학년 쯤..? 솔직히 그동안 일기의 필요성을 딱히 느낀 적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 5개월만큼은 베트남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서 떠오른 방법이 바로 일기였다. 에세이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총 28편의 일기를 썼고, 다행히 아직까진! 하루도 빠짐없이 썼다ㅎㅎㅎ 솔직히 하루 종일 일정이 빡빡한 날에는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자고 싶을 때도 많았다.ㅠㅠㅠ 그러다가도 한번 미루게 되면 끝도 없다는 걸 알기에 일기만큼은 빼먹지 않으려 노력했다. 일기를 쓰다보면 오늘 하루 내가 느낀 감정, 사건들을 되돌아 볼 수 있고, 맨 첫 장부터 다시 읽다보면 내 생각의 변화, 나의 성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특히 이 에세이를 쓸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ㅎㅎㅎ) 다신 오지 않을 앞으로 4개월의 베트남 생활도 하루하루 기록하고 기억하고 싶다. 부디 습관화 되길♥

- 쏟아지는 시선에 익숙해지고 싶다..

우리는 여기서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우리에게 많은 시선이 쏠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만원 버스 안, 시장, 거리, 음식점 등 어딜 가나 모두 우릴 보고 있다.(우리가 맨날 노란색옷을 맞춰 입고 돌아다녀서 더 눈에 띄는 것일지도ㅋㅋㅋ) 하지만 이 시선에 익숙해지는 것이 나에겐 너무 힘들다. 특히 개인시간에 혼자서 밖을 돌아다닐 때!! 평소 우리는 항상 5명이 함께 다니기 때문에 시선들이 다섯으로 분배된다. 하지만 혼자 다닐 때에는 그 시선을 감당해야하는 것은 오로지 나 혼자뿐이다ㅠㅠ 그들의 시선이 결코 나쁜 마음이 아닌 단지 신기하고 궁금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지만(하지만 간혹 상당히 노골적인 시선도 있다.) 그 상황을 능숙히 대처하기엔 내가 아직 어리다. 앞으로 베트남에 살면서 이러한 시선들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도 그들에게 당당하고 여유를 가지려 노력해야 겠다.



- 상상과 현실의 괴리

베트남에 오기 전 우리가 YSD와 함께 하게 될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다. 베트남 청년들과 협업하여 워크캠프를 진행하는 것! 여기서 내가 가장 기대했던 것은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기획하고 진행해 나가는지 보는 것이었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위계질서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와는 방식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우리가 하게 된 활동은 고아원 봉사, 뇌성마비 치료센터 봉사가 주를 이뤘다. 솔직히 처음엔 "이런 봉사활동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데,,", "난 베트남 청년들과 협업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초조하게 몇 주를 보낸 것 같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니 내가 베트남에 온지 얼마 되지지도 않았고, 호치민에 대해 아는 것도 많지 않은데 벌써부터 이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생각이었다. 또한 고아원, 뇌성마비 치료센터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YSD에서 제시해준 활동이었고, 1명의 YSD직원이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달 동안 나는 너무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은 아닌가 싶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 누구는 빠르다고, 누구는 느리다고, 누구는 뽀뽀하다고, 누구는 여유롭다 생각할 수 있다. 각자마다 본인의 기준이 있으니까. 하지만 난 너무 나만의 잣대를 가지고 YSD를 '평가'하고 있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하루를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4개월도 화이팅!!



베트남에서의 9월 한달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 지난 한달 동안 나는 무엇을 느끼고, 배우고, 얼마나 성장 하였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성장은 잘 모르겠고 성장하기 전에 나를 알고 주위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9월 8일 출국 전 나는 국내훈련동안 크게 느끼지 못했던 걱정과 불안함을 출국 전에 왈칵 느끼며, 복잡한 머릿속과 마음을 끌어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호치민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낯선 모습들에 '이제 실전이다'라는 생각에 또 다른 불안감이 없어졌고, 또 공항 밖에서 앞으로 함께 할 밝게 반겨주는 YSD 친구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기대감과 즐거움이 없어졌다. 이렇게 나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느끼며 베트남에서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 활동

지난 9월 첫 달은 적응의 시간이자 배움의 시간을 보냈다. 적응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나에게 담으려 하니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한 달간 주어지고 오락가락하는 활동에 잘 따라 왔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힘들고 불편하고 너무 새롭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이유가 있고 모든 것이 나에게 의미가 되고 배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스스로 과하게 자기합리화를 한 것 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급한 것 없이 천천히 흘러가는 데로 찾아보고 알아가보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임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가짐이 나의 활동을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내가 너무 주관없이 주어진대로만 하고있는 건가?', '내가 활동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보려는 마음이 부족한가?', 그러다가 부정하고 노력하다가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큰 건가?', '나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많은 고민과 생각의 반복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 질문에 대답을 했다가 또 수정하는 반복이 이어졌고, 아직도 정의는 내리지 못했다. 또 팀 활동을 이루어가면서 팀원의 생각과 고민을 들어보고 교차하는 지점과 부딪히는 지점을 알아가고 그것으로부터 이어지는 깊은 생각과 나를 이해하고 팀을 이해하고 또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마냥 쉬운 한 달이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번 달에 'Children'의 테마로 활동을 하면서 얻는 것도 많았다. 처음에는 소통의 장벽 때문에 활동이 어려웠고 힘들었다. 이후에는 나의 가치관과 다르고, 특정 기관에서는 내가 보았던 것들과는 상반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 나의 생각에 갇혀 있는 나로서는 받아들이기에 심리적으로 힘들기도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관 및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서 원만한 대화는 어려워도 서로의 눈을 통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기관과 친구들 더 나아가 베트남의 연결고리가 생기고 이해도는 점차 늘어났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베트남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으며 이러한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YSD 친구들과 함께하는 팀원들에게 너무 감사한 베트남의 첫 활동의 달이었다.

● 생활

어느 지역에서의 항상 첫 시작은 수 많은 것들이 나에게 쏟아져 정신 없는 시간이 되는 것 같다. 그렇기에 호치민이라는 도시의 수많은 낯설고 새로운 모습과 정보는 쉴 새 없이 나에게 들어왔다.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지냈던 것과 다른 환경 모든 것이 새로운 모습이었기에 나에게는 당황스러움과 흥미로움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그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더 알고 싶어지고 더 이해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난 한달 동안 다양한 정보를 잠깐 보았더라면 앞으로는 그러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아가고 익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을 말하는데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인 것 같다. 라온아띠 팀원들과 YSD 멤버들과 첫 달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기도 하였고, 많은 것을 교류하였다. 이 친구들과 함께 함으로서 수 많은 생각들이 주어져 나의 베트남 첫 달은 알찬 한 달이 되었다. 정말 함께 해주어서 즐거움과 고마움을 느낀다. 앞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좋은 시간 힘든 시간이 반복하며 이어질 테지만 기대가 된다.



베트남에 가져온 복잡한 생각과 감정은 물론, 지난 한달 동안 사라지고 새롭게 생기는 생각과 감정에 따른 질문과 대답은 계속 나 스스로에게 던져지고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 이 과정은 현재진행이고 미래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없을 수 있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려 한다. 비록 힘들고 느릴 수 있지만 불편함과 답답함 속에 있고 즐겨보려 한다. 끝.

- 그리고 한 달간 내가 고민한 것들.
- 나와 타인이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나를 유지하면서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 대도시인 호치민에서 나의 생활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며 생활을 해야 되는가?
- 여기의 대학생들은 시급이 1만동(500원)에서 시작하는데, 내가 지출하는 돈에 있어서 적절한 소비와 지출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일까?
-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사용인가?
- 나는 출국 전 라온아띠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정립되지 않아 '잘못 받아들인 것인가? 모르는 것인가?'
- 빈곤은 무엇이고, 이곳 베트남/호치민에서의 빈곤은 무엇일까?
-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 사회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끼친 것인가?
- 활동안내서의 '늘 질문합시다'의 질문과 대답에 대한 고민



베트남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비행기 타기 직전 출발한다고 엄마한테 연락한 게 엿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여기 와서 뭐 했는지 생각해보니 이번 달은 아파서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났다. 베트남에 오자마자 물갈이를 해서 3~4일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 그 후 몸이 좀 괜찮아지려고 하자 다시 감기에 걸려 5일 정도는 아파서 거의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거의 1주 정도는 몸이 안 좋아 거의 집에서 누워만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나에게 첫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간 거 같기도 하다.

나는 주말이나 아침활동이 없는 날 모자를 쓰고 힙색을 매고 동네에서 운동을 한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집 근처에서만 운동했지만 지금은 강을 따라 숨이 찰 때까지 뛰어갔다 집으로 오곤 한다. 그리고 베트남에 와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디를 가나 우리는 외국인, 다른 나라 사람이기에 시선집중이 되었다. 처음에는 그 시선이 다소 불편했지만 지금은 그냥 '신 짜오' 인사를 하거나 눈웃음을 짓고는 밝게 웃어준다. 이렇게 베트남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베트남에 떠나기 전에 나 자신과 한 약속이 있었다. 처음은 인간관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기. 두 번째는 술에서 멀어지기 세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기였다.

여기 와서는 학업과 사회에서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어서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국의 친구들은 시험기간이고 이제 다시 실습을 나갈 준비를 하느라 바빠서 힘들다는 연락을 계속 받았다. 나도 한국에 있었으면 학업에 치여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텐데 이곳에서는 그런 느낌 없이 매일 매일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두 번째인 술과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왜냐면 베트남에 와서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팀원들이 술을 마실 때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 자신과 약속을 했기에 끝까지 마시지 않았고 앞으로도 잘 참았으면 좋겠다. ^^~~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기는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것 같다. 베트남에서 5개월 활동하면서 이수민은 누구이고 이수민은 어떠한 사람이고 이수민은 과연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 찾고 싶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남들이 좋아하는 이수민으로 살아왔던 것 같다. 이제는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아보고 싶고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나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볼 것이다.

베트남에서의 한 달은 만족스러웠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이나 몸짓으로 이야기 했고 우리 팀원에게 더 의지하며 우리 모두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 남은 4개월 동안도 힘들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잘 의지하며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9월, 우리의 고민거리

9월의 주제는 "children"이었어. 사실 미팅을 통해 이 주제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파고다에서 우리의 역할, 의미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았지. 앞으로의 우리의 계속된 숙제이기도 해.

활동과 나눔은 잘 이루어지지만, 활동을 계획하는 회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 우리의 스케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YSD 사람들과 따로 일하다 보니 분리되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우리가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우리가 사무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작업공간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생기는 불편함이 있어. 그들의 공간과 우리의 공간을 어떻게 잘 맞춰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 대해 우리는 YSD와 몇 번의 중간 미팅을 가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생각할 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나눔



YSD에게 전달



미팅



앞으로 있을 베트남 호치민팀의 10월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COMING SOON
Hẹn gặp lại (또 만나요~)

수민

재열

상표

수연

소희

